

- 미래사회연구회 2018년 제1차 워크숍 - 충남연구원의 미래

□ 행사 개요

- 일 시 : 2018. 9. 10.(월) 17:00
- 장 소 : 충남연구원 3층 세미나실
- 주 제 : 충남연구원의 미래
- 참 석 : 원내 미래사회연구회 회원 등
(강마야, 박경철, 송두범, 오용준, 정옥식, 홍원표)

□ 주요 내용

- 2019년 예산 결정과정이 연구원 위상에 주는 의미
 - 당초 연구용역으로 수행하던 법정계획을 출연금으로 수행하며, 전략과제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함
 - 이는 도가 원의 전략과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하며, 도정의 텅크탱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함
 - 연구원 설립 당시 도와 원이 수직적 구조를 갖고 출발했는데, 보다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, 오히려 수직구조로 물러서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음
- 시대가 변했고, 연구원도 변하지 않으면 존재의의를 상실할 가능성 있음
 - 우리원을 포함 정부/지방의 정책연구기관은 사실 개발시

대의 산물이며, 일본 사례를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많음

※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1993년 정부가 5개년개발계획 수립을 중단한 이후 사실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인터넷의 등장 등 정보순환 가속화와 정책지식 생산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수공업적 연구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
- 외국 사례를 보면, 정책지식수요자와 공급자 간 관계가 수직형, 협조형, 시장형으로 변천해 왔는데, 원과 도와의 관계가 수직형에서 협조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
○ 연구원 위상제고 위해 우선 공론화와 조사연구 필요

- 현재 문제는 연구원의 위상과 미래에 관련한 중대한 논의를 진행할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임
- 한편, 연구원 위상 제고는 연구조사를 통한 근거확보와 논리개발이 필요한데,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차원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
- 현 상황에서는 연구원의 대표적 대의기관인 노사협의회, 행복발전소 등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→ 미래사회연구회가 관련 회합을 주선하도록 하고, 연구실장께 모임을 건의